

제22대 노동조합 임원으로
당선된 김경수 위원장과
문병원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노동조합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챗GPT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대학주보

‘경희의 이름으로’, 신입생 입학식 4년 만에 대면 개최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2023학년도 입학식이 2월 2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것을 4년 만에 양 캠퍼스(양캠프)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면 입학식이었다. 입학식은 ▲식전 퍼레이드 ▲1부 본행사 ▲2부 환영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본행사 이전에 양캠프 학장과 학생회장, 신입생들은 단과대학별 순서에 따라 행진했다. 이들은 교시탑과 본관을 지나 평화의 전당으로 입장하며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어 1부 본행사는 ▲내빈입장 ▲국민의례 ▲경희개관 ▲입학하가 ▲환영사 ▲학생 명예선언 ▲축사 ▲축하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본행사에는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한균태 총장, 교무위원, 구성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내국인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캠은 문과대학 241명, 자율전공학부 80명, 정경대학 562명, 경영대학 367명, 호텔관광대학 336명, 생활과학대학 162명, 이과대학 337명, 의과대학 111명, 한의과대학 110명, 치과대학 79명, 약학대학 125명, 간호과학대학 89명, 음악대학 120명, 미술대학 65명, 무용학부 49명으로 총 2,833명이 입학할 허가받았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공과대학 675명, 전자정보대학 238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12명, 응용과학대학 165명, 생명과학대학 223명, 국제대학 149명, 외국어대학 315명, 예술디자인대학 334명, 체육대학 353명 등 총 2,664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한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내기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사랑하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느라 애써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담대한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를 다룬 한 총장은 “대학에서 어떤 공부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평화의전당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고 점수로 서열을 가리던 지난 공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아니며 진정한 공부는 답이 여러 개일 수도 때론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에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질문하는 능력’, ‘창의성’, ‘융합력의 실천’으로 꼽으며 “대학 생활 동안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의 창학정신과 미래 비전을 본인의 것으로 소화한다면 후마니타스로 재탄생하는 것은 물론 지구적 실천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라”는 당부의 말로 환영사를 맺었다.

이후 양캠프 학생 대표의 명예선언이 이뤄졌다. 양캠프 총학생회장단과 신입생 대표 2명으로 구성된 학생대표는 “우리는 교수님을 학술과 실천의 탁월한 주체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것이며 경희의 모든 구성원과 성실과 신의를 다해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우리는 창의력과 공감력이 풍부한 실천적 지성인으로 성장하고 경계를 허물고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이 생동하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조성할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교육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윤리를 준수하며 학생 명예선언이 단발적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경희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명예선언을 마무리했다.

조 이사장은 ‘향상의 과업, 전일사관의 새 물결’을 주제로 축사를 진행했다. 조 이사장은 “우리가 처한 지구적 현실은 진화 혹은 붕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세계로 상향 이동하든지 위기와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그것이 문제인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계, 그 가능성을 위해서 기성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면서 또 다른



(사진= 최예령, 홍지민 기자)

차원의 도전 의식을 만들어가야 하는 진취적,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경희에서 맘껏 배우면서 희망의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고 입학생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입학식 1부는 음악대학의 축하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환영행사는 ▲대학생활 안내 ▲신입생 필수교육 ▲학생대표 환영인사 ▲동문 환영인사 ▲교가배우기 ▲재학생 환영공연 ▲초청가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대표 환영인사와 동문 환영인사에서 각각 양캠프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단과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인 정우영(스포츠지도학 2008) 선수가 신입생에게 환영 인사를 보냈다. 환영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국제캠 태권도 시범단과 양캠프 응원단 그리고 10CM(십센치)가 무대를 선보이며 마무리됐다.

이날 입학식에 참여한 김민준(중국어학 2023) 씨는 “꿈꿔왔던 경희

대에서 입학식 행진을 할 때 너무 기뻐했다”며 “경희대학교에서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즐겨보겠다”고 입학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서울캠 크라운관에서 별도로 진행된 학부모 행사는 ▲1부 행사 실황중계 ▲개식선언 ▲환영사 ▲대학소개 ▲대학생활로 진행됐다.

사령

- 면** <기획팀장>
박소은(미디어학 2021)
<미디어팀장>
강나윤(경영학 2020)
<뉴스팀장>
강다은(호텔경영학 2020)
- 명** <기획팀장>
이지수(미디어학 2020)
<미디어팀장>
홍지민(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국제뉴스팀장>
최예령(한국어학 2020)
<서울뉴스팀장>
정다연(국어국문학 2021)